

# 프랑스 고건축물의 보존 및 리모델링 방법에 관한 연구

- 비주거 및 공공건물 중심으로 -

## A Case Study on Remodeling Methods & Conservation of Ancient Buildings remodeled in France

- Focusing on the examples of Non-Residential & Public Buildings -

김 소 영\*

Kim, So-Young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public building remodeling projects in France. Through investigating cases of ancient buildings remodeled in France, the study aimed to provide fundamental data and analysis for remodeling public buildings. Accordingly, seven cases were analyzed in terms of remodeling methods,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methods of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ancient historical buildings, as well as a change of usage of an existing building.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the criteria of French ancient building remodeling. The remodeling methods of an existing building vary in their goals and strategies depending on how the old architectural elements are persevered, as well as how new elements are added to form their unique characteristics. Thus, the remodeling methods are classified into four types based on causes: restoration, extension, renovation and rebuilding. Such methods are used jointly rather than individually. The ancient building remodeling is the process of recreating new functions and new artistic values to preserve the cultural and artistic values of existing historic buildings.

키워드 : 옛 건축물, 리모델링, 보존, 복원, 용도, 프랑스

Keywords : Ancient Architecture, Remodeling, Conservation, Restoration, Usage, France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건축계의 주요한 흐름과 관심을 3가지로 꼽자면 우선 친환경적인 건축, 친인간적인 건축 그리고 지속가능한 건축이다. 리모델링은 지속가능한 건축의 한 방식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 리모델링에 관심이 높은 데 주거건물 이외에도 비주거 건물과 공공건물 등에도 앞으로 리모델링이 주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노후화되거나 기능이 낙후된 오래된 건축물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바꾸어 건축물의 물리적, 경제적 수명을 연장시키는 리모델링은 지속가능한 개발<sup>1)</sup>의 한 방법이자, 재건축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해결책이 되어 줄 것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의 공공건물의 리모델링은 노후화된 시설물의 현대화 작업 정도로 인식되고 있고 기존 건축물의 역사성을 보존하며 현재의 필요와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리모델링 방법의 건축 계획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역사적 건축유적부터 근대건축물에 이르기까지 옛 건축물의 보존 및 활용에 관심이 높아 국가적으로 건축문화유산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는 프랑스의 다양한 방식의 공공건물 리모델링 사례들을 조사하여, 국내 공공건축물의 지속가능한 유지관리 또는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리모델링 제고를 위한 고건축물의 보존 및 리모델링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프랑스의 건축유적부터 근대건축물에 이르기까지 옛 건축물의 보존, 활용 및 리모델링 과정에서 나타나는 건축 계획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프랑스의 문화재 보호제도를 조사하고, 프랑스에서의 대표적인 리모델링 사례를 중심으로,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용도변화 및 보존방법을 고찰하고 건축

\* 정회원, 프랑스 파리 라빌레뜨 건축학교 석사, 프랑스건축사  
1)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을 일컫는 말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가 1987년에 발표한 《우리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에 의해서 공식화되었다.

계획적인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사례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범위는 현재 프랑스의 리모델링 사례 중 비주거 건물 및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기준에 맞는 사례를 조사하여 보존, 활용 및 리모델링 방법을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 2. 프랑스 고건물 리모델링 현황

### 2.1 프랑스의 리모델링 개념 및 정의

프랑스어로 리모델링<sup>2)</sup>은 여섯 개의 단어로 정의된다.<sup>3)</sup>

표 1. 프랑스의 리모델링 정의

구분	단 어	의 미
1	아멜리오라시용 (amélioration du bâti)	기술적인 복구, 건물 사용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
2	레스토라시용 (restauration)	건물을 이전의 역사적인 상태에 맞도록 원상태로 되돌림
3	레콩베르시용 (reconversion)	건물의 용도·기능을 바꿈
4	레스트뤼라시용 (restructuration)	내부 구조를 바꾸어 건물을 재구성함
5	레노바시용 (rénovation)	오래된 건물의 대부분이나 전체를 새롭게 바꿈. 광범위한 의미
6	레아빌리타시용 (réhabilitation)	건물의 용도·기능을 바꾸지 않고 건물의 상태를 개선시킴

프랑스에서의 리모델링은 이와 같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구분되어 유사한 전문용어들로 정의되어지며 때때로 중복해서 사용된다. 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용어는 레콩베르시용(reconversion)과 레아빌리타시용(réhabilitation)으로 리모델링 과정에서 건물의 용도와 기능이 바뀌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구분된다.

### 2.2 프랑스 문화재 보호제도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3월 등록문화재 제도가 도입되어 근대문화유산 보존에 나서고 있는데, 인식부족과 재산권침해에 대한 우려로 등록기피가 여전하다. 프랑스에서는 국가적으로 문화재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명확하고 국민들의 문화재 관리의식이 높아 건축유산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보존 및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운영제도를 지니고 있다.

#### (1) 프랑스 문화재 관리체계<sup>4)</sup>

프랑스 문화재 관리체계는 중앙정부를 축으로 하는 수직체계와 지방정부와 문화재관리총국(Direction du Patrimoine) 산하단체들로 구성된 횡적인 체계로 대별할

2) 우리나라 건축법(제2조10)에서는 리모델링(remodeling)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3) Pascale Joffroy, “la réhabilitation des bâtiments”, Le Moniteur, Paris, p 13, 1999

4) 프랑스의 문화재 관리체계, 국립문화재연구소, p12-32

수 있다. 1914년에 설립되어 1965년에 완전 개편된 국립역사기념물 및 유적지 기금(Caisse nationale des monuments historiques et des sites)은 문화재 총관리국이 관리하는 국가문화재를 관리하고 문화재에 관계된 도서를 출판하는 곳이다. 이 기관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들에게 문화재 인식과 애호심을 고취하는 것이다.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 밖에는 없는 것이다. 1996년 7월에 설립된 문화재 재단(Fondation du Patrimoine)은 정부와 기업들이 참여해서 조직한 공공 재단으로 그 목적은 문화재의 보수와 전시, 국가문화재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사업의 개발과 위협에 처한 기념물과 일괄 동산문화재를 보호하는 것이다.

#### (2) 역사 기념물의 보호<sup>5)</sup>

역사적이거나 예술적인 건지에서 공공건물이나 개인건물 또는 그 일부의 보존이 공공의 이익이 된다면 문화부장관에 의해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지방장관에 의해 보조 목록에 등재되어 보호되며 그 주변지역도 보호된다.

#### (3) 교육과 연구 및 홍보정책<sup>6)</sup>

프랑스는 문화재 인식을 제고하는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다. 국립역사기념물 및 유적지 기금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문화재의 날 행사, 도서 출판과 세미나, 유적지 자원봉사와 같은 청소년사업, 문화유산 워크숍 등을 통해 문화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큰 공헌을 하고 있다.

### 2.3 프랑스 공공건물 리모델링 경향

프랑스 주거건물 리모델링은 대부분이 기존의 용도를 유지하면서 건물의 상태를 개선하는 리모델링이 특징인 반면에, 프랑스에서 공공건물의 리모델링은 두 방향으로 실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노후화된 건물을 개선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필요에 따른 건축 행위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용도와 기능의 문제에 따른 프로그램의 요구가 그것이다.<sup>7)</sup>

공공건물 리모델링 중에서 특별하게 구별되는 부분은, 건물 용도의 특성이 뚜렷한 체육관, 수영장, 극장 건물은 기존 용도를 유지한 채 리모델링 되는 것을, 리모델링 시 건물 내 행위의 제약이 있거나 이전이 어려운 병원, 중·고등학교 건물은 리모델링 보다 재건축되는 것을 선호하는 특징을 보인다는 점이다.

고건물 복원으로 건축물의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기능으로 기존 건물을 보다 활성화 시키는 공공건물의 리모델링은 단순히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과 도시에도 적극적인 영향을 미친다. 파리시는 1970년대 말 베르시(Bercy)에 있는 17,18세기의 오래된 와인창고의 골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부를 현대식으로 개조하여, 레스토랑이나 쇼핑몰이 새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단지 전체를 성공적으로 활성화시켰다.

5) 프랑스의 문화재 관리체계, 국립문화재연구소, p16-17

6) 프랑스의 문화재 관리체계, 국립문화재연구소, p30-32

7) Pascale Joffroy, “la réhabilitation des bâtiments”, Le Moniteur, Paris, p 114, 1999





1993년 리벳이 녹슬고 메탈구조체가 약화되어 35m의 높이에서 구조체의 리벳이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났고 이를 계기로 그랑 팔레는 문을 닫고 대대적인 복원 및 보수 리모델링 작업에 들어갔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1단계 리모델링 작업<sup>16)</sup>은 기초를 보강하고 유리 돔을 수리하였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 2단계 리모델링 작업<sup>17)</sup>은 전체 입면, 천장, 조각품 등을 복원하는 작업으로 현재 2번째 리모델링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표 3. 건축물의 보존 유형에 따른 사례분석

구분	사례 및 특성	
외부 보존		
	A. 오르세 미술관 외부보존, 내부공간 추가	B. 리옹 오페라 하우스 외벽 보존, 지붕 변경
		
	D. 의학학분야 협의기관본부 외부보존, 유리지붕 추가	G. 파리 OECD한국대표본부 외부보존
내부 보존		
	C. 베수나 박물관 주거 유적 보존	F. 쏘 시청사 내부 공간의 보존
복원 보존		
	A. 오르세 미술관 케노피, 외벽장식물 복원	E. 그랑 팔레 중앙홀, 유리돔, 주요실 복원

(2) 건축물의 활용

성능이나 기능의 상대적 가치가 저하되는 등 진부화된 기존 건물은 기존 기능의 보완 및 새로운 기능이 추구되어지고 리모델링이라는 재창조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건물의 기

존용도 유지, 용도 변경 2가지로 구분하여 건축물의 활용 유형을 분석하였다.

1) 기존용도 유지<sup>18)</sup>

건축가 장 누벨이 리모델링한 리옹 오페라 하우스는 1831년에 지어진 신고전주의 양식의 대극장 건물로 1993년 350명을 수용하는 현대적인 오페라 하우스로 재탄생되었다. 기존의 대극장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부에 새로운 구조체를 형성해 현대식 대극장 공간을 비롯하여 계단식 강의실, 발레연습실, 스튜디오 공간 등을 만들어 기존의 기능을 보완하였다.

그랑 팔레는 뽀띠 팔레(Petit Palais), 알렉상드르 3세교(Pont Alexandre III)와 함께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Exposition Universelle)를 기념하여 만들어져 90년이 넘는 시간동안 파리의 주요한 전시공간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1925년 장식미술 전시회(Exposition des Arts Décoratifs), 1937년 국제 예술과 기술 전시회(Exposition Internationale des Arts et Techniaues)등이 개최되었다. 1993년 안전문제로 문을 닫고 2005년 1차 리모델링이 완성된 이후부터 전시장과 전람회장으로 재이용되고 있다.

1865년에 건설된 쏘 시청사건물은 프랑스 제2제정시대(Second Empire)의 귀중한 건축유산으로 보존되어 왔으나 도시 규모의 증가에 따라 2만 명의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청으로서는 충분하지 못한 규모가 되었다. 그래서 1970년대부터 새로운 건물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고 2001년 리모델링 계획이 구체화되어 2006년 건축가 다니엘 카헤인에 의해 역사와 전통을 가진 기존 시청사 건물은 새로운 시청사로 거듭나게 되었다. 건축유산인 기존건물은 온전히 보존되면서 증축된 새로운 공간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안내 공간이 개선되고, 부족했던 업무공간이 추가로 확보되었다.

2) 용도 변경<sup>19)</sup>

오르세 미술관은 1900년 오를레앙 철도의 종착역으로 건설되었으나 기계화가 진행되고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39년간의 기차역으로서의 역할을 마감하게 되고 이후 경매소, 호텔, 극장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다가 1977년蓬피두 대통령 시절 프랑스 정부의 결정에 따라 미술관으로 재탄생 되었다. 건축가 가에 아우렌티의 주도아래 1980년부터 1986년까지 기차역은 4개 층의 전시공간으로 바뀌어 지금은 세계 3대 미술관으로 우뚝 섰다.

프랑스의 오래된 도시 빠리그에 있는 갈로로망시대의 주거유적은 건축가 장 누벨에 의해 단순한 옛 건축물의 흔적에서 다양한 자료들과 함께 보고 느끼는 베수나 박물관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

베르사유궁전의 유산이 있는 보호구역에 위치한 18세기의 고급주택인 호텔 데 가벨(Hôtel des Gabelles)은 리모델링을 거쳐 의학학분야 협의기관 본부로 재탄생했다. 기존 건물의 외부공간인 중정을 실내공간으로 개조하여 사무실을 찾는 상담고객들과의 만남의 공간으로 리모델

16) 1단계로 남쪽 부분 기초 및 중앙홀의 기초 강화작업과 중앙홀의 메탈구조 및 유리돔 보수작업이 진행되었다.

17) 2단계 리모델링은 시계탑 발코니, 남동쪽 회랑, 명예의 응접실(Le salon d'honneur)이 새롭게 공개될 계획이며 2009년 말경에 완료될 예정이다.

18) 프랑스어 레아빌리티타시옹(réhabilitation)에 해당함

19) 프랑스어 레콩베르시옹(reconversion)에 해당함

릴하여 주거공간을 업무공간으로 변경하였다.



a) 오를레앙 기차역                      b) 오르세 미술관

그림 6. 오르세 미술관 리모델링 전과 후

(자료 : © Musée d'Orsay )

1957년 건축가 조지 에네강(Georges Hennequin)에 의해 지어진 실업가 마르셀 다소의 고급주택 건물은 Atelier234에 의해 파리 OECD 한국대표 본부 건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주거공간, 접견실, 사무공간, 하인숙소로 구성된 역사가 오래된 개인주택 건물을 내부공간을 리모델링하여 공공건물로 바꾸어 일반인들을 위한 안내실, 전시실, 강의실을 비롯하여 외교단들을 위한 사무실과 대사와 장관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냈다.

표 4. 건축물의 활용 유형에 따른 사례분석

구분	사례	건물용도
기존용도 유지	B. 리옹 오페라 하우스	공연장
	E. 그랑 팔레	전시장
	F. 쏘 시청사	시청사
용도 변경	A. 오르세 미술관	철도시설 → 전시장
	C. 베수나 박물관	주거유적 → 전시장
	D. 의약학분야 협의기관본부	주택 → 업무시설
	G. 파리OECD한국대표본부	주택 → 업무시설

(3) 리모델링 방법

1) 수직·수평 증축<sup>20)</sup>

2003년 건축가 장 누벨은 갈로로망시대의 주거유적이 있는 곳에 베수나 박물관을 계획하였다. 그는 유적들을 보존하면서 박물관을 건축하기 위해서 흔적들 위로 살짝 떠있는 가벼운 유리박스형태의 건축물을 제안하면서 갈로로망시대 주거공간의 흔적들 위로 투명하고 가벼운 유리벽을 세우고 그 위로 거대한 지붕을 씌우는 방식을 택했다. 이 지붕은 주거공간의 중심부분을 보호하고 있으며 9m 높이의 14개의 금속 기둥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다.

건축가 클로드 내쌍(Claude Naissant)에 의해 1863년부터 1865년까지 건설된 파리 근교 도시 쏘 시청사 건물은 프랑스 제2제정시대의 귀중한 증거로 보존되어 왔으나 도시 규모의 증가에 따라 새로운 건물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왔다. 이에 따라 건물의 중앙에 위치한 정원에 증축하는 안과 측면으로 증축하는 안, 두 가지 방안이 논의되어 왔는데, 건축가 다니엘 카헤인은 건물 중심에 위

치한 녹지공간에 증축을 하는 것은 전체적인 건물과 조화롭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기존 시청건물의 건축적, 도시적 특성을 보존하는 범위 안에서 중앙 정원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존건물 측면으로 증축하는 방안을 제안하여 현상설계에 당선되었다. 기존 건물에 모든 우선권을 두고 건축물의 역사성을 존중하면서 대지 안에 현대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것과 주민들에게 필요한 안내 공간 개선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실현하기 위해 그는 매우 현대적이면서 또한 절제되고 조심스러운 표현방식을 통해 새로워진 형태로 공간을 재구성하였다.

2) 개조 및 개축<sup>21)</sup>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오를레앙 철도가 건설한 철도역이자 호텔이었던 이곳은 1939년 철도영업이 중단된 뒤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잇따른 끝에 1986년 오르세 미술관으로 변신했고, 리모델링된 후 이곳은 강철과 유리로 실내를 장식하고 32m높이의 유리 돔으로 들어오는 자연광을 최대한 이용한 미술관으로 탈바꿈했다.



a) 기존    b) 리모델링 후

그림 7. 의약학분야 협의기관본부 단면도

(자료 : © Dumont-Montmarin )

베르샤유 궁전 근교에 위치한 고급주택을 의약학분야 협의기관 본부로 리모델링하기 위해 건축가 그레고아 뒤몽과 인테리어 건축가 티보 드 몽마랑은 역사적인 건축물이라는 인식 속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망가진 건물의 가치를 새롭게 하여 삼십여 명의 근무자들에게 가능한 최상의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현대적인 창조 작업을 거쳐 이곳을 중요한 공간으로 만드는 도전을 하였다. 우선 기존 건물의 훼손된 타일이나 중정의 바닥재를 교체하고 건물의 볼륨과 입면 등의 건축적 요소들을 변질시키고 있는 지나간 시간동안 다양하게 변경된 부분들을 고치기로 결정했다. 외부의 보수 및 복원작업을 거쳐 내부는 현대적인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되었다. 기존 중정공간이었던 곳에 유리지붕을 씌워 현관에서 바로 연결된 안내공간과 금속편칭메탈로 둘러싸인 개별 상담창구를 만들었다.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를 기념하여 만들어져 각종 전시장과 전람회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그랑 팔레는 기초보강과 중앙홀 메탈 구조 및 유리 돔 보수 및 복원 작업의 1단계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하면서 1960년대 만들어져 파리1대학이 사용하던 계단강의실을 100명이 수용 가능한 최신 전자장비가 갖추어진 영사실로 리모델링하여 공간의 가치를 향상시켰다.

20) 프랑스어 익스텐션(ectension)에 해당함

21) 프랑스어 레노바시옹(rénovation)에 해당함



면서 건축 당시의 내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사한 색채의 재료로 새로운 공간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유리나 금속재료를 사용해 역사적인 건물과 현대적인 요소의 대비를 통한 결합 방법이 보여진다. 리옹오페라하우스의 내부 공용공간은 모두 검은색의 금속재료가 사용되어 빛의 반사를 따라 흘러 다니는 듯한 느낌을 주며, 검은색은 19세기의 문화유적을 가장 도드라지게 보여주는 겸손한 색임을 깨닫게 만든다. 파리 OECD 한국 대표 본부 내부에는 높은 유리벽의 수직관통공간이 형성되어 있다. 한국작가 최병욱의 작품으로 연출된 커다란 얇은 유리관이 건물의 중심에서 자연의 빛을 관통하게 해주고, 또한 유리벽과 마주하고 있는 나무벽의 따뜻함과 자연 재료가 가지는 특성은 투명한 유리의 특성과 반대의 느낌을 준다. 베수나 박물관의 유리벽은 가장 비물질적인 재료로서 역사적인 건축 유적지의 중심에 놓여 주변 환경을 흡수하는 요소가 되어준다.



a) 리옹오페라하우스      b) 쏘시청사      c) 파리OECD한국대표본부

그림 10. 재료와 색채

(자료출처 a : 리옹 오페라 하우스 홈페이지

자료 b, c : © Monthiers )

쏘 시청사 건물의 재료들은 매우 간소하고 절제되어 있고 제한된 숫자로 쓰였다. 재료들은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도록 선택되었는데 석재는 기존 오래된 시청의 돌과 같은 색조로 사용되었고, 징크 지붕은 기존 지붕과 동일한 재료가 사용되고 있다. 증축 부분에 사용된 녹색을 띤 유리는 오래된 것들과 대비를 이루면서 동시에 시각적 관통감을 느끼게 해주어 현대적인 것과 오래된 것의 결합을 이끌어 낸다.

표 6. 사례 건축물의 재료 분석

사례 구분	A	B	C	D	E	F	G
기존건물과 동일한 재료	○				○	○	
유리		○	○	○		○	○
금속		○	○	○		○	○
목재			○				○

(2) 실내 공간 계획

베수나 박물관의 지붕은 9m 높이의 14개의 금속 기둥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는 거대한 검정색의 금속지붕으로, 검정색 금속지붕 표면에는 전시공간에 보여지는 갈로로망시대 주거공간의 흔적을 따라 상징적인 선들이 표현되어 있다.

의약학 분야 협의기관 본부 건물의 거리에서 보여지는 외부 모습은 시간의 흔적들을 모두 간직한 기존 건축물을 그대로 복원 보존하였지만 내부 공간은 지붕과 바닥을 새롭게 설치하여 현대적인 공간으로 탈바꿈 시켰다. 중정 공간에 설치된 유리지붕과 들여다보이는 유리 바닥판은 보존된 외부 공간과 현대적인 내부 공간을 상호 소통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a) 베수나박물관      b) 의약학분야협의기관본부      c) 쏘시청사

그림 11. 실내 공간 계획

(자료 b : © M. Fainsiber / 자료 c : © Monthiers )

쏘 시청사 건물 내부 공간의 일반적인 분위기는 매우 깔끔하고 중립적이다. 벽, 천장, 문은 흰색으로 칠해져 있고 1층 바닥은 흰색돌이, 2층 바닥은 진한 갈색 카펫이 깔려 있어 오래된 건축물 옆으로 증축된 공간으로서 차분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내부 공간에서 유일하게 강한 부분은 옆 건물과의 경계벽인 붉은색 벽으로, 증축된 부분을 관통하여 전면도로에서 정원까지 연결시켜준다.

4. 결론

본 연구는 프랑스 옛 건축물 중 비주거건물 및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식의 리모델링 사례들을 조사하여 리모델링 방법 및 건축 계획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국내에 적용 가능한 공공건물의 리모델링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역사적 건축유적부터 근대건축물에 이르는 프랑스의 공공건물 리모델링 사례를 통하여, 보존·활용 및 리모델링 방법과 그에 따른 건축 계획적 특성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프랑스 고건물 리모델링 사례에서 가장 큰 특징으로 도출되는 것은 기존의 역사적인 건축물의 문화적·예술적 가치를 최대한 보존하고 기존 건물의 특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리모델링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리모델링 계획이 가능한 이유는 그들의 유산을 최대한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프랑스 사람들의 공동체 의식과 다양한 사업을 통해 문화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프랑스 정부의 교육 및 홍보정책이 뒷받침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프랑스는 국가적으로 건축문화유산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어 기존의 건물을 부수지 않고 새롭게 재탄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오래된 고풍스러움과 현대의 세련됨을 동시에 간직하고 있는 건물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표 7. 리모델링 사례 종합 분석

사례		A	B	C	D	E	F	G
원인	노후화	○	○		○	○	○	○
	진부화	○			○		○	○
	역사적보존	○	○	○		○		
보존	외부보존		○		○			○
	내부보존			○			○	
	복원보존	○				○		
활용	기존용도유지		○			○	○	
	용도 변경	○		○	○			○
방법	수직·수평증축			○			○	
	개조 및 개축	○			○	○		○
	구조 변경		○					

A: 오르세 미술관 (Musée d'Orsay)  
 B: 리옹 오페라 하우스 (Opéra de Lyon)  
 C: 베수나 박물관 (Musée Vesunna)  
 D: 의약학 분야 협의기관 본부 (Action d'Eclat)  
 E: 그랑 팔레 (Grand Palais)  
 F: 쏘 시청사 (Hôtel de ville de Sceaux)  
 G: 파리 OECD 한국대표 본부 (Siège de la délégation permanente de la Rép. de Corée auprès de l'OCDE)

둘째, 사례를 통하여 프랑스 고건축물 리모델링의 기준들을 발견할 수 있다. 리모델링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존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노후화, 사회적·기술적 정세의 변화로 성능이나 기능의 상대적 가치가 저하되는 등의 진부화, 역사기념물 및 유적지 등의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건물의 역사적 보존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 옛 건축물을 리모델링 하는 작업은 기존 건축물을 보존 및 복원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파손되거나 기존 건물에 어울리지 않게 복원이 되어 원래 건축물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부분들을 다시 복원시켜 외부는 그대로 보존하고 내부를 리모델링 하거나, 기존 건물의 역사적·예술적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외부 리모델링이 진행된다. 기존 건물은 리모델링을 거쳐 노후화를 억제하고 기능을 향상시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는데, 똑같은 기능으로 바뀌기도 하지만 이전과 전혀 다른 용도로 새로 태어나 진화하여 건축물의 물리적·경제적 수명이 연장된다. 고건축물의 리모델링 방법은 수직·수평증축, 개조 및 개축, 구조 변경으로 구분할 수 있고, 건물을 증축할 경우 역사적인 건물과의 관계가 중요하며, 기존 건축물의 디자인과 특성을 잘 보존하면서 현대적인 건축물이 서로 어우러지도록 다양한 방법들이 보여 지고 있다.

셋째, 고건축물에 새로운 것을 추가하여 공간을 재창조하는 데에 있어, 이질적이지 않게 오래된 것에 새로운 것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그것 자체로 하나로 인식되어지게 하기위해 두 요소의 결합 방법에 관한 다양한 건축

계획적 특성들이 보여 진다. 기존 건축물과 유사한 재료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유리나 금속재료를 사용해 역사적인 건물과의 대비를 이루면서 투명하고 가벼운 재료의 성격을 이용한 현대적인 요소와의 결합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현대적으로 리모델링된 내부 공간은 오래된 기존 건축물과 다양한 방식의 상호 관계를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그것 자체로 하나로 인식되어진다.

결과적으로, 프랑스 고건축물 리모델링은 단순히 낡고 오래된 건물에 대한 수선이 아니라, 역사적인 건축물의 문화적·예술적 가치를 인정하면서 그 가치를 보존하고 기존 건물의 디자인과 특성을 잘 살려 현대적 감각에 맞도록 새로운 기능과 새로운 예술적 가치를 창출하는 재창조의 과정이다.

참고문헌

1. Pascale Joffroy, La Réhabilitation des bâtiments, Le Moniteur, Paris, 1999
2. Philippe Robert & Christine Desmoulins, Transcriptions d'Architectures, Exposition, ADPF<sup>23)</sup>, Paris, 2005
3. Philippe Robert, De la réhabilitation à la reconversion, in Techniaue et architecture, n° 432, juillet 1997
4. Christine Desmoulins, Ancien et contemporain, entre greff et clonage, in d'Architectures, n° 96 octobre, 1999
5. 윤성훈, 해외 근대건축물 리모델링 수법 및 용도변화에 관한 사례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 춘계 우수졸업 논문전 수상논문 개요집, 제5회(2009-04)
6. 문화재보호에 관한 외국사례연구-프랑스의 문화재 관리체계, p.7-32, 국립문화재연구소, 1996
7. 리옹 오페라 하우스 홈페이지 (www.opera-lyon.com)
8. 베수나 박물관 홈페이지 (www.vesunna.fr)
9. 의약학 분야 협의기관 본부 홈페이지 (www.actiondeclat.com)
10. 그랑 팔레 홈페이지 (www.grandpalais.fr)
11. L'Internaute Magazine 웹페이지 (www.linternaute.com)
12. Cyber Archi 웹페이지 (www.cyberarchi.com)

논문접수일 (2009. 10. 21)  
 심사완료일 (1차 : 11. 20, 2차 : 해당없음)  
 게재확정일 (2009. 11. 25)

23) ADPF (Association pour la diffusion de la pensée française) : 프랑스사상보급협회. 2006년 프랑스예술진흥협회 (AFAA)와 통합하여 문화부 및 외무부 산하의 문화예술 국제교류 전담 기구 킬튀르 프랑스(Cultures France)로 재탄생하였다.